

청구야담 한문본 필사 오류 연구 - 음사(音寫)의 개입을 중심으로

이 강 목*

차 례

- | | |
|---|------------------------------------|
| I. 서론 | IV. 『청구야담』 이본 비교에서의 음사 오류 현상 활용 |
| II. 『청구야담』 필사 과정의 음사(音 寫) 원리 | V. 결론 |
| III. 『청구야담』 필사 과정에 개입한 음사(音寫) 오류의 양상 | |

국문초록

본고는 『청구야담』 한문본의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사례를 적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1)한자의 음이 같고 글자가 다른 경우 2)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글자가 다른 경우 3)한자의 음과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경우 4)한자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우선 다루었다.

먼저 『청구야담』 필사 과정의 음사(音寫) 원리를 재구성하였다. 다음

* 영남대학교 교수

으로 『청구야담』 필사 과정에 개입한 음사(音寫)의 양상과 필사 오류를 넷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했지만 뜻이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2)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하여 문맥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3) 한자음을 부정확하게 읽었거나 정확하게 읽었지만 잘못 기억하여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지 못한 경우 4) 한자음을 비슷하게 읽었거나 기억하고 뜻이 비슷한 글자로 필사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야담』 이본 비교에서의 음사 오류 현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먼저 음사 오류 현상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청구야담』 이본 중 최선본이라 할 <버클리대본>과 그 다음 많은 단편을 싣고 있는 <동양본>, 그리고 6책본을 대표하는 <국도본>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따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도본>은 <동양본>보다는 <버클리대본>과의 상친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음사 오류 현상을 이본 간 선후 관계를 해명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어 음운 변천에서 ‘ㄴ’와 ‘ㄷ’의 교체 현상,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을 참조하여 이본 간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후대본으로 짐작되는 이본일수록 음사 표기의 오류가 더 많이 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음사의 오류가 있는 이본은 그렇지 않는 이본보다 앞설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그런 방법론과 원칙으로써 <버클리대본>이 <동양본>보다 앞선 이본임을 밝힐 수 있었다.

『청구야담』 한문본에는 한자의 비슷한 모양을 두고 일어난 필사 오류도 음사 오류 못지않게 많다. 또 부수(部首)의 오류는 소리와 모양이 함께 개입하여 생긴 필사 오류이다. 앞으로 이 두 국면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서 『청구야담』 한문본 필사 오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청구야담, 필사, 오류, 음사, 한자음, 이본 비교, 버클리대본, 동양본, 6책본, 국도본

I. 서론

야담 연구는 60년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야담의 현실 반영 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서서히 야담집의 형식적 영역에 대해서까지 연구가 확장되어왔다. 특히 야담집의 실증적 문헌학적 고찰은 야담 연구가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야담집의 작가를 찾아내거나, 야담집 이본 간의 차이와 관계를 해명하는 것 등이다.

『청구야담』은 이야기의 수나 질 면에서 정점을 보여주는 야담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본 수도 많다. 규장각 한글본(19책), 가람문고 한글본(19책) 등은 한글본이고, 한문본으로는 가람문고본(5권 5책: 이하 ‘가람본’), 서울대 고도서본(5권5책), 일사문고본 갑(1책: 이하 ‘일사본’), 일사문고본 을(1책), 성균관대 도서관본(6권 6책), 고려대 도서관본(6권 6책: 이하 ‘고대본’), 영남대 도남문고본(6권 6책), 국립중앙도서관본(6권 6책: 이하 ‘국도본’), 동경대 도서관본(7권 7책: 이하 ‘동경대본’), 일본 동양문고본(서벽외사 해외수일본 갑, 8권 8책: 이하 ‘동양본’), 미국 버클리대학 극동도서관본(서벽외사 해외수일본을, 10권 10책: 이하 ‘버클리대본’) 등이 있다. 이중 <버클리대본>이 290화로 가장 많은 작품을 실고 있는 한편, 다른 이본들은 화수에서 일정한 출입을 보인다. 권수도 한 책으로 된 것부터 10책으로 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청구야담』은 야담집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본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이본들은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그 이본 자체의 검토나 이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버클리대본>은 『청구야담』 이본 중 최선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필자는 <버클리대본>을 저본으로 하여 『청구야담』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그 원문을 다른 이본의 원문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

에서 한문본 이본 사이에는 작품 수나 책 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필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차이는 대체로 필사자의 착각이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간혹 필사자의 적극적 교정 의지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다.

본고는 『청구야담』 한문본의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차이를 적출하고, 그런 차이가 초래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본 사이의 차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뉘질 수 있다.

- 1) 한자의 음이 같고 글자가 다른 경우
- 2)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글자가 다른 경우
- 3) 한자의 음과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경우
- 4) 한자의 위치가 다른 경우

『청구야담』 한문본 이본에서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문 서적을 필사할 때는 꼼꼼한 교정을 보기 때문에 오류가 거듭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문집이나 교과서류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필사 과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문집이나 교과서류의 필사에서는 필사에서 정평을 얻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는 최소화되게 마련이다. 그와 비교할 때 『청구야담』의 한문본을 필사한 필사자들은 한문 실력이 대단찮거나 한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문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필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교정을 본 것 같지도 않다. 일단 필사한 뒤에 스스로든 다른 독자에 의해서든 그 잘못을 그대로 표시하고 고친 부분도 발견된다.

이러한 『청구야담』 한문본 이본에 나타난 차이와 오류들은 문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와는 달리 야담이 아닌 책의 한글본 필사 오류에 대한 연구는 몇 사례 있는데¹⁾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백두현, 이미향의 논문이다. 백두현, 이미향은 한글본 오류의 원인별 유형을, ‘필사자의 무의식적 실수로 인한 오기’, ‘필사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오기’ 등으로 크게 나누고, 전자를 다시 ‘오표기로 인한 비의도적 오기’와 ‘오인식형(誤認識形)이 노출된 비의도적 오기’로 나누고 후자를 ‘주관적 오인식을 반영한 오기’, ‘필사자의 언어 습관이나 문헌의 특성을 반영한 오기’ 등으로 나누었다.²⁾ 오기를 필사자의 실수로 보고 그것이 비의도적인가 의도적인가를 중요한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청구야담』 한문본의 오류도 이에 대응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의도적인 부분이 많은 반면 의도적인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문본 필사 오류를 나누는 데는 비의도적인가 의도적인가라는 기준을 일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한자의 음과 모양, 뜻의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를 읽고 쓰는 데는 이중언어 현상이 유발된다. 먼저 한자는 우리 입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다. 또 한자 한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자가 유발하는 이런 다양한 국면들이 『청구야담』 필사자에게 더 뚜렷하게 관철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청구야담』 필사자들은 한자의 음과 모양과 뜻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중 한자의 음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착각을 경험한 것 같다. 본고는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음사(音寫)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한자의 모양과 뜻의 관계, 한자의 위치의 문제 등은 별고를 통하여 본고의 논의 내용을 발전시킬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한문본 필사라는 우리 문화 현상의 한 국면을 해명한

1)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서설』, 세종문화사, 1986; 백두현, 이미향,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오기(誤記)의 유형과 발생 원인』, 『어문학』 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

2) 위의 논문, pp.29-59.

다는 의의와 함께 『청구야담』 이본 담론의 새로운 척도와 영역을 개척한다는 의의도 가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구야담』 이본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문장의 표현과 단어의 계승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는 바, 본고의 논의는 이본 간 관계나 선후 문제를 좀더 정교하게 따지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청구야담』 필사 과정의 음사(音寫) 원리

한글본 필사와 달리 한문본 필사는 필사자가 모본의 문장들과 글자들을 시각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한글본 필사에서 다른 사람이 모본을 읽어주고 필사자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필사할 수가 있다. 음사(音寫)로 필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문본의 필사자는 아무리 한문에 능통했다 하더라도 모본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필사를 완수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이 한문의 음을 읽어주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사(音寫)의 전통은 우리 문화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향찰식 표기나 이두식 표기의 전통이 그것이다. 향찰식 표기나 이두식 표기는 우리 한문을 읽는 독자의 기대지평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필사자의 그것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한문 필사자는 한문을 읽어가며 필사하는 전통의 자장 속에 존재했다. 그 과정을 따져보자. 먼저 필사자는 모본의 한자들을 하나씩 보고, 다음으로 한 구절, 한 줄, 한 문장을 볼 것이다. 혹은 그 역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뒤 필사자는 필사지로 시선을 옮겨 모본의 한문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다. 필사자가 모본의 한자들을 정확하게 필사지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시간적 간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망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사자는 모본의 한자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자의 이미지는 쉽게 희미해지거나 망실되고는 한다. 그 잔영을 붙들고 한자를 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모본 한자의 이미지가 망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차적 조치를 모색하기도 했을 것이다. 먼저 문장의 맥락과 의미 속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하면 한자의 이미지가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담집 필사자들이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필사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미지는 더 빨리 망실되었다.

야담집 필사자가 한자를 재현하는 데는 이미지 뿐 아니라 각 한자의 음을 기억하려고 했다. 필사자는 모본의 한자를 이미지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그 한자의 음을 입으로 소리 내거나 속으로 되뇌면서 필사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구절이나 문장, 행 단위로 소리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필사자가 한자의 음을 실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확한 필사를 도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한 필사를 방해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자는 동음이의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필사자가 소리 내거나 속으로 되뇌는 한자의 독음은 필사지에 해당 한자를 재현하는 데 개입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하거나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구야담』 한자 오류의 상당수는 이 과정의 문제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청구야담』 필사 과정에 개입한 음사(音寫) 오류의 양상

1. 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했지만, 뜻이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필사자가 필사과정에서 모본의 해당 한자를 보고 그 독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했지만 그 독음으로부터 한자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모양이나

뜻에서 전혀 다른 글자를 떠올리고 필사한 경우이다. 『청구야담』 필사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우선 <버클리대본>이 정확하고 다른 이본이 틀린 경우를 살펴본다. 지금부터 모든 진술의 기준은 <버클리대본>이다.

(ㄱ)

文筆俱極佳(→국도본·고대본 “可”³); 小僧自可(→고대본 “家”⁴)^{辦備}4); 皆以絳(→동양본 “江”⁵)色畫布裹其頭⁵); 吾先下去(→동양본 “居”⁶)當付吏案⁶); 吾之所居(→고대본 “去”⁷)尙遠矣⁷); 次婦之恩固(→고대본 “姑”⁸)大矣⁸); 諸子輩愕然相顧(→동경대본 “告”⁹)⁹); 立墓石工(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共”¹⁰)匠感孝婦¹⁰); 與吾同去(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居”¹¹)¹¹); 與屋子齊高(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告”¹²)¹²); 是老爺姑(→동경대본 “故”¹³)借將令¹³); 過(→동양본 “果”¹⁴)萬金有餘¹⁴); 湖丹旌先素輜(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驕”¹⁵)¹⁵); 不拘(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苟”¹⁶)小節¹⁶); 僅(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近”¹⁷)庇風雨¹⁷); 權旣(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其”¹⁸)隣居¹⁸); 姑未起(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忌”¹⁹)寢¹⁹

- 3) <窮儒詭計得科宦>(청구야담 버클리대본 권1)(앞으로 청구야담 권수는 버클리대본 권수를 표시함)
- 4) <教衙童海印寺僧爲師>(청구야담 권8)
- 5) <赴南省張生漂大洋>(청구야담 권3)
- 6) <入吏籍窮儒成家業>(청구야담 권9)
- 7) <訪桃源權生尋眞>(청구야담 권10)
- 8)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 9) <逐官長知印打頰>(청구야담 권4)
- 10) <立墓石工匠感孝婦>(청구야담 권1)
- 11) <李東臯爲僊擇佳郎>(청구야담 권2)
- 12)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 13) <綠林客誘致沈上舍>(청구야담 권10)
- 14) <被室謫露眞齋折簡>(청구야담 권4)
- 15) <起死人臨江哀輓>(청구야담 권6)
- 16) <朴南海慷慨樹功>(청구야담 권2)
- 17)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ㄴ)

趨出而應於門內(→동경대본 “乃”)曰²⁰⁾; 李相公某, 少時磊(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 “牢”)落(→동경대본 “犖”)不羈²¹⁾

(ㄷ)

殘山斷(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短”)22); 倘(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當”)教我以開井之方²³⁾; 都(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徒”)出於威脅也²⁴⁾; 再不渡(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到”)漢江²⁵⁾

(ㄹ)

俄者老(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 “路”)人携手指路²⁶⁾; 施以順類(→동양본 “流”)27); 願進賜更勿念如妾醜行之類(→동경대본 “流”)28)

(ㄱ)

厥數滿(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萬”)千²⁹⁾; 盡買燕市名(→동양본 “明”)珠寶佩奇錦異緞³⁰⁾; 村人埋其狗於墓(→동양본 “廟”)前³¹⁾

(ㄴ)

某適在旁(→고대본 “方”)叱曰³²⁾; 詳細訪(→고대본·가람본 “放”)問³³⁾; 『得至寶賈胡買奇病(→고대본 “兵”)』³⁴⁾; 其奴善步(→고대본 “報”)者一人³⁵⁾; 興復(→동양본 “福”)無期³⁶⁾; 過三日後, 紅自官府(→고대본 “赴”)37); 路費(→고대본 “備”)實亦難辦³⁸⁾; 俱非(→동경대본 “備”)自京隨來者類³⁹⁾

18) <得二妾權上舍福緣>(청구야담 권5)
 19) <進祭需嶺吏欺李班>(청구야담 권7)
 20) <惑妖妓冊室逐知印>(청구야담 권9)
 21) <還玉童宰相償債>(청구야담 권10)
 22) <乞婚需朴道令呈表>(청구야담 권5)
 23) <守貞節崔孝婦感虎>(청구야담 권6)
 24) <語消長偷兒說富客>(청구야담 권1)
 25) <料倭寇麻衣明見>(청구야담 권1)
 26) <金丞相瓜田見異人>(청구야담 권10)
 27) <勸痘神李生種德>(청구야담 권2)
 28) <惑妖妓冊室逐知印>(청구야담 권9)
 29) <捐千金洪象胥義氣>(청구야담 권5)
 30) <識寶氣許生取銅爐>(청구야담 권2)
 31) <吠官庭義狗報主>(청구야담 권5)

(八)

急使(→동양본 “舍”)人追之⁴⁰); 宣沙(→고대본 “使”)浦僉使⁴¹); 到今無辭(→고대본·가람본 “事”)可白⁴²); 監司(→동경대본 “使”)大爺⁴³); 未嘗(→동양본 “常”)有一張⁴⁴); 嘗(→고대본 “尙”)與楸灘吳公允⁴⁵); 特爲安恕(→국도본·고대본·동양본·일사본·가람본 “徐”)⁴⁶); 庶免生書(→고대본 “庶”)房之終身⁴⁷); 嘖嘖稱羨(→동경대본 “仙”)⁴⁸); 內無賦稅(→고대본 “勢”)之繁⁴⁹); 赤立身世(→고대본 “勢”)⁵⁰); 其梳(→동양본 “搔”)頭洗垢之節⁵¹); 其所(→동경대본 “小”)食債及回糧亦云不足⁵²); 右手藏于袖(→고대본·가람본 “手”)間⁵³); 遂(→고대본·가람본 “手”)持妓札⁵⁴); 厥商手(→동양본 “遂”)拔石角上一圍木⁵⁵); 能守(→고대본 “修”)世業⁵⁶); 於禹水(→고대본 “守”)岷陸學究家⁵⁷); 巡令手(→고대본·가람본 “守”)斯速現身⁵⁸); 能死生相隨(→동양본 “遂”)否⁵⁹); 或者高朋之垂(→고대본 “羞”)察⁶⁰); 儻深猜(→동양본 “是”)此婢⁶¹); 當生神(→고대본·가람본 “新”)駒⁶²); 時(→동경대본 “是”)任又外於官志⁶³); 弊府既漏於版籍時(→동경대본 “是”)任⁶⁴

- 32) <鬪劍術李裨將斬僧>(청구야담 권6)
- 33) <擬映邑宰相償舊恩>(청구야담 권3)
- 34) <得至寶賈胡買奇病>(청구야담 권10)
- 35) <宰錦城杖殺金漢>(청구야담 권1)
- 36) <宋班窮途遇舊僕>(청구야담 권3)
- 37) <得佳妓沈相國成名>(청구야담 권7)
- 38) <葬三屍湖武陰德>(청구야담 권1)
- 39) <鄉弁自隨統帥後>(청구야담 권4)
- 40) <倡義兵賢母孀子>(청구야담 권4)
- 41) <練光亭錦南應變>(청구야담 권2)
- 42) <李東臯爲儻擇佳郎>(청구야담 권2)
- 43) <誦恩德每飯稱閔爺>(청구야담 권4)
- 44) <被室謫露眞齋折簡>(청구야담 권4)
- 45) <吳按使永湖逢薛生>(청구야담 권5)
- 46) <得二妾權上舍福緣>(청구야담 권5)
- 47) <乞婚需朴道令呈表>(청구야담 권5)
- 48) <遊淇營風流盛事>(청구야담 권8)
- 49) <朴南海慷慨樹功>(청구야담 권2)
- 50) <呈舊僚鄭司果戲墨>(청구야담 권5)
- 51) <得佳妓沈相國成名>(청구야담 권7)
- 52) <行胸臆尹弁背義>(청구야담 권9)
- 53) <夢黃龍至誠發宵寐>(청구야담 권1)

(○)

適又(→국도본·고대본·가람본 “于”)來到⁶⁵); 出於(→동양본·일사본 “御”)南大門樓上⁶⁶); 與(→동양본 “如”)他人語⁶⁷); 例有屋裂(→동양본 “列”)聲⁶⁸); 君以向日事, 自外(→고대본 “畏”)而不來乎?⁶⁹); 除妖(→고대본 “要”)祛害⁷⁰); 非君之所自爲(→동양본 “謂”)也⁷¹); 小生之積年遊(→동양본 “留”)京⁷²); 受由(→국도본·고대본·가람본 “留”)過限⁷³); 淫(→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일사본 “陰”)慾發動, 挽⁷⁴); 激於義(→동양본 “意”)氣也⁷⁵); 雖以儀(→동양본·동경대본 “衣”)表見之⁷⁶); 諸人依(→동경대본 “倚”)欄簇立⁷⁷); 而好誼(→동양본 “義”)者也⁷⁸); 譬之以(→국도본·고대본·가람본 “而”)陶朱之聚散⁷⁹); 書而(→국도본·고대본 “以”)給之曰⁸⁰); 金既移(→동양본 “已”)入⁸¹); 日(→국도본·고대본 “一”)寒如此哉⁸²

- 54) <呂相托辭登大闢>(청구야담 권1)
- 55) <逢丸商窮儒免死>(청구야담 권4)
- 56) <蔡士子發憤力學>(청구야담 권5)
- 57)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 58) <練光亭京校行令>(청구야담 권7)
- 59) <孟監司東岳聞奇事>(청구야담 권9)
- 60) <送美酒沈相憐才>(청구야담 권10)
- 61)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 62) <訪舊主名馬走千里>(청구야담 권6)
- 63) <綠林客誘致沈上舍>(청구야담 권10)
- 64) <綠林客誘致沈上舍>(청구야담 권10)
- 65) <呂繡衣移花接木>(청구야담 권1)
- 66) <料倭寇麻衣明見>(청구야담 권1)
- 67) <騙鄉儒朴靈城登科>(청구야담 권4)
- 68) <文有采出家辟穀>(청구야담 권5)
- 69) <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권1)
- 70) <毀淫祠邪鬼乞命>(청구야담 권5)
- 71) <致精誠課曉拜佛像>(청구야담 권4)
- 72) <被室謫露眞齋折簡>(청구야담 권4)
- 73) <義男臨水喚俞鐵>(청구야담 권1)
- 74) <誇丈夫西貨滿馱>(청구야담 권1)
- 75) <彈琴臺忠僕收屍>(청구야담 권2)
- 76) <樂溪村李宰逢鄉儒>(청구야담 권9)
- 77) <遊淇營風流盛事>(청구야담 권8)
- 78) <往南京鄭商行貨>(청구야담 권9)
- 79) <語消長儉兒說富客>(청구야담 권1)

(ㄷ)

有刀者(→동양본·동경대본 “子”)⁸³; 年旣長(→고대본 “葬”)⁸⁴; 卽唱勸酒
 歌將(→고대본 “長”)進酒⁸⁵; 掌簿(→동양본 “將簿”)書⁸⁶; 及長(→국도
 본·동양본·가람본 “壯”)揮淚誓曰⁸⁷; 沒汝蹤跡, 藏(→동양본·동경대본
 “莊”)汝軀⁸⁸; 李都將(→고대본 “長”)家; 懸錢(→고대본 “田”)入送之意⁸⁹;
 乃細述顛(→동양본 “轉”)末⁹⁰; 專(→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全”)事豪⁹¹; 懸錢(→고대본 “田”)入送之意⁹²; 益著正(→고대본 “整”)色
 曰⁹³; 大人此症(→동양본 “證”)⁹⁴; 三男位至(→고대본 “止”)大司諫⁹⁵; 檻
 車送至(→고대본 “之”)京城戮之⁹⁶; 中軍繼之(→국도본·고대본·가람본
 “至”)⁹⁷; 吾不之(→고대본·가람본 “知”)信焉⁹⁸; 所望至(→동양본 “只”)
 此⁹⁹; 君則來何遲(→고대본 “地”)也¹⁰⁰; 此志士扼腕奮志(→동경대본 “智”)
 之秋也¹⁰¹; 三退三進(→고대본 “陣”)¹⁰²; 時道始陳(→고대본 “進”)得銀來
 謁之由¹⁰³; 須臾而盡(→고대본 “進”)¹⁰⁴

- 80) <練光亭京校行令>(청구야담 권7)
 81) <得金缸兩夫人相讓>(청구야담 권5)
 82) <蠹石樓繡衣藏踪>(청구야담 권7)
 83) <大人島商客逃殘命>(청구야담 권2)
 84) <定佳城地師聽痴僮>(청구야담 권1)
 85) <捕獠賊具名唱權術>(청구야담 권2)
 86) <商山吏屢世忠節>(청구야담 권6)
 87) <張義士爲國捐生>(청구야담 권6)
 88) <報喜信纏馬長鳴>(청구야담 권9)
 89) <金丞相瓜田見異人>(청구야담 권10)
 90) <訟夫冤錦城女擊鼓>(청구야담 권4)
 91) <得佳妓沈相國成名>(청구야담 권7)
 92) <金丞相瓜田見異人>(청구야담 권10)
 93) <貸營錢義城倅占風>(청구야담 권8)
 94) <逐官長知印打頰>(청구야담 권4)
 95) <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권1)
 96) <捕獠賊具名唱權術>(청구야담 권2)
 97) <朴南海慷慨樹功>(청구야담 권2)
 98) <練光亭錦南應變>(청구야담 권2)
 99) <乞婚需朴道令呈表>(청구야담 권5)
 100) <鬪劍術李裨將斬僧>(청구야담 권6)
 101)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02) <彈琴臺忠僕收屍>(청구야담 권2)

(ㄸ)

取(→동양본 “吹”)火以起烟光¹⁰⁵); 後種每持其側(→동양본 “厠”)106); 無傷也. 吾雖置(→동경대본 “治”)彼¹⁰⁷); 迎置(→동양본·동경대본 “致”)家中¹⁰⁸); 方纔就寢(→동양본·동경대본 “枕”)109)

(ㄹ)

頗(→동경대본 “破”)爲數斤¹¹⁰)

(ㅎ)

問出於何(→고대본 “下”)策¹¹¹); 生仍問以何許(→국도본 “虛”)人¹¹²); 其人魂(→동양본 “昏”)113); 暗暗還(→동경대본 “換”)送京第¹¹⁴); 李兵使源, 唐將李提督後(→고대본 “厚”)裔也¹¹⁵)

이상 필사 오류들은 모본의 글자와 독음은 똑같지만 모양과 뜻이 완전히 다른 글자를 필사한 경우이다. 뜻이 전혀 다른 글자를 필사함으로써 문맥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가령 ‘文筆俱極佳(→국도본·고대본 “可”)¹¹⁶’의 경우, <버클리대본>에서는 ‘佳’자를 써서 ‘갖추어진 문필이 지극히 아름다웠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었지만, <국도본>·<고대본>은 ‘佳’ 대신 ‘可’자를 써서, ‘갖추어진 문필이 지극히 가능했다.’라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을 만든 것이다. ‘小僧自可(→고

103) <廉義士楓岳逢神僧>(청구야담 권5)
 104) <文有采出家辟穀>(청구야담 권5)
 105) <赴南省張生漂大洋>(청구야담 권3)
 106) <李後種力行孝義>(청구야담 권5)
 107) <問異形洛江逢圃隱>(청구야담 권8)
 108) <定名穴牛臥林間>(청구야담 권4)
 109) <雪伸冤完山尹檢獄>(청구야담 권4)
 110) <獲生金父子同宮>(청구야담 권8)
 111) <據北山錦南成大功>(청구야담 권10)
 112) <柳上舍先貧後富>(청구야담 권7)
 113) <招神將郭生施術>(청구야담 권7)
 114) <入吏籍窮儒成家業>(청구야담 권9)
 115) <李節度麥場逢神僧>(청구야담 권10)
 116) 『청구야담』 상, 129면.

대본 “家”) 辦備¹¹⁷⁾’는 얼토당토않은 오기에 해당한다. “소승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可’를 썼는데, 그 자리에 ‘家’를 넣었으니 <고대본>의 필사자가 문장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면서 필사를 해갔음을 알 수 있다. ‘日(→국도본·고대본 “一”) 寒如此哉¹¹⁸⁾’ 역시 ‘날이 이렇게 춥구나!’는 뜻인데, <국도본>이나 <고대본>은 ‘日’을 ‘一’로 오기하고 있다. 심지어 ‘然後出給之意¹¹⁹⁾’에서 ‘意’는 종지사 ‘矣’가 들어야 할 자리인데도 <동양본>·<동경대본> 뿐만 아니라 <버클리대본>까지도 ‘意’로 표기하고 있다. 설사 문장의 뜻을 해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이런 오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버클리대본>이 틀린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可(←동양본 “加”) 沉惑¹²⁰⁾; 尤不敢(←동양본·동경대본 “堪”) 忿忿¹²¹⁾; 不敢(버클리대본·국도본·가람본←동양본 “堪”) 苦楚¹²²⁾; 實無好階(←동경대본 “計”) ¹²³⁾; 寃告(←동양본·동경대본 “苦”) 切酷¹²⁴⁾; 巡相支公(←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가람본 “供”) 之凡節¹²⁵⁾

(ㄷ)

是汝倘(←국도본·고대본·가람본 “當”) 來物¹²⁶⁾

(ㄹ)

此常理(버클리대본·동경대본←열하일기 “利”) 之道¹²⁷⁾

117) 『청구야담』 하, 253면.

118) 『청구야담』 하, 144면.

119) 『청구야담』 상, 406면.

120) <得美妻居士占穴>(청구야담 권3)

121) <憾宰相窮弁據胸>(청구야담 권4)

122)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123) <綠林客誘致沈上舍>(청구야담 권10)

124) <種陰德尹公食報>(청구야담 권9)

125) <會琳宮四儒問相>(청구야담 권8)

126) <過南漢預算虜兵>(청구야담 권1)

(口)

文秀聞(←동양본·동경대본 “問”)其姓¹²⁸); 公問(←동양본·동경대본 “聞”)之召入¹²⁹); 佳哉! 魚之尾(←국도본·동양본·가람본 “味”)也¹³⁰

(八)

許生謝(←동경대본 “辭”)曰¹³¹); 妹嘗(←학산한언 “常”)面壁就燈, 此何意也¹³²); 多所(버클리대본·동양본←동경대본 “少”)斬獲¹³³); 自吾束(←동양본·동경대본 “屬”)續之時¹³⁴); 返數(←동경대본 “輸”)十倍¹³⁵

(○)

則如(버클리대본·동양본←동경대본 “與”)生時無異云矣¹³⁶); 然群盜易(←동경대본 “亦”)不敢出票掠¹³⁷); 丰茸(←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 “容”)有美色¹³⁸); 此皆婢之族黨所謂(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가람본←학산한언 “爲”)¹³⁹); 請由(←동양본·국도본·고도서본·고대본·가람본 “留”)也¹⁴⁰); 然後出給之意(버클리대본·동양본·동경대본←“矣”)¹⁴¹); 及引(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因”)山禮畢¹⁴²); 入(버클리대본·동양본←“立”)於門外¹⁴³

- 127)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28) <矜朴童靈城主婚>(청구야담 권9)
 129) <還金褒強盜化良民>(청구야담 권9)
 130) <惜一扇措大吝癖>(청구야담 권6)
 131)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32) <拒強暴閨中貞烈>(청구야담 권3)
 133) <倡義兵賢母孀子>(청구야담 권4)
 134) <鬧官門痘兒升堂>(청구야담 권9)
 135)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36) <訴輦路忠僕鳴冤>(청구야담 권9)
 137)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38) <報重恩雲南致美娥>(청구야담 권8)
 139) <乞父命忠婢完三節>(청구야담 권6)
 140) <廉義士楓岳逢神僧>(청구야담 권5)
 141) <治牛商貧僧逢明府>(청구야담 권4)
 142) <憩店肆李貞翼識人>(청구야담 권7)
 143) <匿屍身海倅償恩>(청구야담 권3)

(ㄱ)

上典家庄(←동양본 “藏”)穰¹⁴⁴); 屢享全(←동양본·동경대본 “專”)城之奉¹⁴⁵); 彼程(←동양본·동경대본 “頂”)有石窟¹⁴⁶); 未知(←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至”)營少許¹⁴⁷); 何以言之(←동양본 “志”)¹⁴⁸); 鎮(버클리대본·국도본·가람본←동양본 “盡”)日紛叢¹⁴⁹)

(ㄴ)

皮(←동경대본 “彼”)必喜其見親而許之¹⁵⁰)

(ㄷ)

氣極蒼荒(버클리대본·동경대본←동양본 “黃”)¹⁵¹); 蒼荒(버클리대본·동경대본←동양본 “黃”)疾驅¹⁵²)

여기서 정확하게 표기한 이본과 음사 오류가 있는 이본 간의 선후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사례를 발견한다. ‘妹嘗(← 학산한언 “常”)面壁就燈, 此何意也’의 사례이다. 익히 알려진대로 『청구야담』은 『학산한언』 소재 작품 31화 이상을 옮기고 있는데,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인 <拒强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 <吉貞女>(학산한언 318면) → <拒强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의 방향이 명백하다. <吉貞女>(학산한언 318면)에서 “常”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만¹⁵³) <拒强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에서는 “嘗”으로 오기¹⁵⁴)하고 있는 것이다. <버클리대본>와 함께 <동양본>도 똑같은 오류

144) <李節度窮途遇佳人>(청구야담 권3)

145) <逢奇緣貧士得二娘>(청구야담 권9)

146) <伏園中舊妻授計>(청구야담 권9)

147) <驗異夢西伯識前身>(청구야담 권1)

148) <成小會四六詩令>(청구야담 권5)

149)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150)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51) <還金囊强盜化良民>(청구야담 권9)

152) <還金囊强盜化良民>(청구야담 권9)

153) 『학산한언』, 320면.

를 보이고 있다. ‘此皆婢之族黨所謂(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가람본←학산한언 “爲”)’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학산한언』의 <京中士人沈姓者>(학산한언, 425면)에서는 ‘爲’로 표기¹⁵⁵⁾하고 있는데, <버클리대본>, <동양본>, <국도본>, <가람본> 『청구야담』 모두가 ‘謂’로 오기¹⁵⁶⁾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음사의 오류가 있는 이본은 그렇지 않는 이본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청구야담』 이본 간의 선후 문제나 상호관계를 따질 때 응용될 수 있다. 가령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을 비교한다면, 그 맞고 틀림이 관계를 버클리대(○):동양본(○)/ 버클리대본(○):동양본(X)/ 버클리대본(X):동양본(○)/ 버클리대본(X):동양본(X) 등으로 나누어 그 선후와 영향관계를 따질 수 있다. 물론 이때 두 이본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하기 이전에 개별 작품이나 개별 권 단위로 그 점을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은 『청구야담』 이본 중 가장 많은 화수를 포함한 두 이본이라 하겠는데, 둘의 선후 관계를 음사 오류의 차원에서 간략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버클리대본>(○):<동양본>(X)의 경우는 41회, <버클리대본>(X):<동양본>(○)의 경우는 20회,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이 똑같이 음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6회로 나타난다. 두 이본이 함께 틀린 경우가 6회 나타난다는 것은 두 이본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그중 <버클리대본>이 맞고 <동양본>이 틀린 경우가, <버클리대본>이 틀리고 <동양본>이 맞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나타난다는 것은 <버클리대본>이 선행하고 <동양본>이 뒤따랐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결과는, <버클리대본>이 10권 10책에 총 290화인데 비해 <동양

154) 『청구야담』 상, 393면.

155) 『학산한언』, 426면.

156) 『청구야담』 하, 50면. 『청구야담』 아세아 문화사 영인본의 버클리대본 권6은 6책본의 권2를 영인한 것이다. 영인해온 버클리대본에서 권6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청구야담』 하, 21면 해설 참조) 고려대 해외한국학센터에 입수되어 있는 버클리대본 영인본에는 권6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도 ‘謂’로 표기되어 있다.

본>이 8권 8책에 총 266화라는 사실과 이어진다. 즉, <동양본>은 <버클리대본> 자체나 그에 준하는 모본을 바탕으로 하여 취사 필사된 이본이라는 결론이다.

음사에 의한 오류가 한 이본 한 문장 속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諸人依(→동경대본 “倚”)欄簇立嘖嘖稱羨(→동경대본 “仙”)¹⁵⁷⁾, ‘諸子輩愕然(→동경대본 “爾”)相顧(→동경대본 “眈”)¹⁵⁸⁾ 등이다. 한 이본의 한 문장 속에서 이같은 음사(音寫) 오기가 거듭 나타난다는 현상이야말로 음사 오기의 경향성이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본별 오류의 빈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이본 | 이본 총 화수 | 오류 횟수 | 오류 횟수/이본 총화수 |
|-------|---------|-------|--------------|
| 버클리대본 | 290화 | 34회 | 0.12 |
| 동양본 | 266화 | 48회 | 0.18 |
| 동경대본 | 156화 | 25회 | 0.16 |
| 국도본 | 182화 | 16회 | 0.09 |
| 가람본 | 182화 | 21회 | 0.12 |
| 고대본 | 182화 | 59회 | 0.32 |

총화수 대비 오류 빈도수에서 이본 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유독 <고대본>이 다른 이본에 비해 갑절 이상의 오류 빈도를 보인다. <고대본> 필사자의 수준과 성향을 짐작하게 한다. 짐작컨대 <고대본>이 가장 뒤의 이본으로서, 모본에 이미 있던 오기를 그대로 이양받으면서 스스로 필사 과정에서 오류를 덧붙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가람본>은 원고지에 세로로 필사된 것이어서 역시 후대본이라 할 수 있다. <가람본>은 6책본인 <국도본> 계열의 어느 이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되었을

157) <遊淇營風流盛事>(청구야담 권8)

158) <涿官長知印打類>(청구야담 권4)

것인데, 역시 <국도본>보다 <가람본>의 오류 횟수가 많다. 이를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6책본에 포함되는 이본들도 이와 같은 음사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그 선후 영향 관계를 해명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2. 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하여, 문맥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필사자가 모본의 한자를 보고 그 독음을 정확하게 읽었더라도 필사한 글자는 모본의 그것과 다른 경우가 있다. 독음은 정확하게 기억했지만 모본 한자의 모양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자의 모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독음을 바탕으로 하여 알맞은 글자를 떠올리게 되었겠지만 모본의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지는 못했다. 이때 두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글자가 문장 속에 들어가 말이 성립되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다. 먼저 말이 성립하는 경우를 따져보자.

而只有一介(⇒국도본·고대본·동양본·동경대본·가람본 “箇”)女息(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동경대본·파수편·가람본 “媳”)159); 某適在旁(⇒국도본·가람본 “傍”)叱曰160); 借宜(⇒동양본 “冠”)服以來161); 宜(⇒동양본 “冠”)服輝煥162); 一日妻甚饑(⇒동경대본 “飢”)泣曰163); 其班無計逃(⇒고대본·가람본 “圖”)生164); 而憤(⇒동양본·동경대본 “忿”)不勝165); 閱監司(⇒동경대본 “使”)大爺166); 寧有漏洩(⇒동경대본 “泄”)之理167); 平日所(⇒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素”)親權進士168); 自幼時守(⇒동양본 “隨”)廳169); 嘗以巡使隨(⇒고대본 “守”)廳妓侍立矣170); 厥商手(⇒동양본 “遂”)拔石角上一圍木171); 其夫尋(⇒국도본·고대본·가람본 “深”)思良久172); 是安秀才家也(⇒동양본 “耶”)173); 聯(⇒동양본 “連”)幅大華牋174); 遂聯(⇒동경대본 “連”)轡而行175); 洪則未悟(⇒고대본 “寤”)其意176); 乃悟(⇒동양본·파수편 “寤”)甚異之177); 則金家當謂(⇒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爲”)178); 金自以爲(⇒국도본·고대본·동양본·일사본·가람본 “謂”)必死179); 吾依而(⇒동양본·국도본·고대본 “倚以”)

爲生¹⁸⁰); 然而(⇔동양본·동경대본 “以”)山僧所見¹⁸¹); 則錢穀從何以(⇔국도본·고대본·동양본 “而”)辦出乎¹⁸²); 備夕飯而(⇔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以”)待之¹⁸³); 卽使內局入米泔水一(⇔동경대본 “壹”)器¹⁸⁴); 禦賊(⇔국도본·고대본·가람본·일사본 “敵”)之策¹⁸⁵); 因轉(⇔동양본 “傳”)出¹⁸⁶); 心切(⇔동양본 “竊”)怪之¹⁸⁷); 心竊(⇔국도본·고대본·가람본 “切”)疑之¹⁸⁸); 厥弁心切(⇔동양본 “竊”)喜之¹⁸⁹); 削髮於江陵五臺山月精(⇔동양본 “靜”)寺¹⁹⁰); 夜以定主僕以正(⇔동양본 “定”)名分¹⁹¹); 故俄者人定(⇔동양본 靜之)後¹⁹²); 此藥未必不是當劑(⇔동양본 “製”)¹⁹³); 與僧(⇔국도본·가람본 “諸”)友共肄科業¹⁹⁴); 汝喫朝(⇔고대본 “早”)飯乎¹⁹⁵); 無使他人胡知(⇔고대본·가람본 “之”)¹⁹⁶); 僧徒盡(⇔동양본 “震”)驚就見¹⁹⁷); 客主就寢(⇔국도본·고대본·가람본 “枕”)乎¹⁹⁸); 汝可解衣同枕(⇔동양본 “寢”)可也¹⁹⁹); 其僧尋(⇔국도본·고대본·가람본 “深”)思良久曰²⁰⁰); 畢竟轉(⇔고대본 “傳”)染²⁰¹); 直至(⇔동경대본 “之”)雲從衙²⁰²); 水陸備陳(⇔국도본·고대본·가람본 “盡”)²⁰³); 且(⇔고대본 “此”)皆是汝知己知心之人乎²⁰⁴); 執手觸(⇔동양본·동경대본 “促”)膝謂之曰²⁰⁵); 李耻(⇔동양본 “恥”)不敢歸²⁰⁶); 乍습(⇔동양본·동경대본 “闖”)眼²⁰⁷); 嬉笑諠(⇔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喧”)聒²⁰⁸); 號(⇔고대본 “呼”)哭隨之²⁰⁹

- 159) <李東皐爲僣擇佳郎>(청구야담 권2)
 160) <鬪劍術李裨將斬僧>(청구야담 권6)
 161) <擬狹邑宰相償舊恩>(청구야담 권3)
 162) <李節度窮途遇佳人>(청구야담 권3)
 163)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164) <老媪慮患納小室>(청구야담 권1)
 165) <訴輦路忠僕鳴冤>(청구야담 권9)
 166) <誦恩德每飯稱閔爺>(청구야담 권4)
 167) <捉凶僧箕城伯話舊>(청구야담 권4)
 168) <得二妾權上舍福緣>(청구야담 권5)
 169) <題神主眞書勝諺文>(청구야담 권7)
 170) <平讓妓妍醜兩不忘>(청구야담 권7)
 171) <逢丸商窮儒免死>(청구야담 권4)
 172) <誇丈夫西貨滿馱>(청구야담 권1)
 173) <得美妻居士占穴>(청구야담 권3)
 174) <車五山隔屏呼百韻>(청구야담 권5)
 175) <餽酒石良醫奏功>(청구야담 권10)
 176) <洪尙書受挺免刃>(청구야담 권1)

위에 모은 사례들은 모본과 같은 글자를 필사하지는 못했지만, 모본의 한자와 음도 같고 뜻도 비슷하여 문장의 말이 성립하는 경우들이다. 그 중에서도 某適在旁(⇔국도본·가람본 “傍”)叱曰; 一日妻甚饑(⇔동경대본 “飢”)泣曰; 其班無計逃(⇔고대본·가람본 “圖”)生; 而憤(⇔동양본·동경

-
- 177) <拒强暴閨中貞烈>(청구야담 권3)
 178)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179) <採山蓼二藥商并命>(청구야담 권5)
 180) <廉義士楓岳逢神僧>(청구야담 권5)
 181) <治牛商貧僧逢明府>(청구야담 권4)
 182) <倡義使賴良妻成名>(청구야담 권7)
 183) <老嫗慮患納小室>(청구야담 권1)
 184) <進米泔柳瑞(常)聽街語>(청구야담 9)
 185) <料倭寇麻衣明見>(청구야담 권1)
 186)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187) <鎖陰囊西伯弄舊友>(청구야담 권1)
 188) <老嫗慮患納小室>(청구야담 권1)
 189) <葬三屍湖武陰德>(청구야담 권1)
 190) <得美妻居士占穴>(청구야담 권3)
 191) <宋班窮途遇舊僕>(청구야담 권3)
 192) <責荊妻清士化隣氓>(청구야담 권4)
 193) <投良劑病有年運>(청구야담 권5)
 194) <憑崔夢古塚得金>(청구야담 권6)
 195) <待科傍李郎摘菘>(청구야담 권7)
 196)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197) <文有采出家辟穀>(청구야담 권5)
 198) <洪尙書受挺免刃>(청구야담 권1)
 199) <平讓妓妍醜兩不忘>(청구야담 권7)
 200) <占吉地魚遊石函>(청구야담 권1)
 201) <立墓石工匠感孝婦>(청구야담 권1)
 202) <貸萬金許生行貨>(청구야담 권10)
 203) <柳上舍先貧後富>(청구야담 권7)
 204) <寒蒸豚中夜訪神交>(청구야담 권1)
 205) <捉凶僧箕城伯話舊>(청구야담 권4)
 206) <李節度窮途遇佳人>(청구야담 권3)
 207) <擇孫婿申宰善相>(청구야담 권9)
 208) <寒蒸豚中夜訪神交>(청구야담 권1)
 209) <練光亭錦南應變>(청구야담 권2)

대본 “忿”)不勝; 寧有漏洩(⇔동경대본 “泄”)之理; 是安秀才家也(⇔동양본 “耶”); 則金家當謂(⇔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爲”); 金自以爲(⇔국도본·고대본·동양본·일사본·가람본 “謂”)必死; 則錢穀從何以(⇔국도본·고대본·동양본 “而”)辦出乎; 備夕飯而(⇔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以”)待之; 即使內局入米泔水一(⇔동경대본 “壹”)器; 執手觸(⇔동양본·동경대본 “促”)膝謂之曰; 李耻(⇔동양본 “恥”)不敢歸; 乍合(⇔동양본·동경대본 “闔”)眼; 嬉笑諠(⇔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 “喧”)聒; 號(⇔고대본 “呼”)哭隨之 등은 한자에 비일비재한 동음동의어(同音同義語)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동음동의어가 아니더라도 또 필사자들의 머릿속에서 대체 한자가 절묘하게 연상되어 뜻이 통하게 된 사례들도 있다. 借宣(⇔동양본 “冠”)服以來; 宣(⇔동양본 “冠”)服輝煥; 一日妻甚饑(⇔동경대본 “飢”)泣曰; 其班無計逃(⇔고대본·가람본 “圖”)生; 平日所(⇔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素”)親權進士; 厥商手(⇔동양본 “遂”)拔石角上一圍木; 汝喫朝(⇔고대본 “早”)飯乎; 僧徒盡(⇔동양본 “震”)驚就見; 直至(⇔동경대본 “之”)雲從衙; 水陸備陳(⇔국도본·고대본·가람본 “盡”); 且(⇔고대본 “此”)皆是汝知己知心之人乎 등이다. 어느쪽이든 이 경우들에서 필사자들은 문맥을 잘 읽어가며 문장의 뜻을 완전히 해독하고 필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례에서는 필사자가 한글자씩 축자적으로 읽고 옮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장 단위로 읽고 옮겼다고 추정된다.

我若移居(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去”)210); 士人出居(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去”)外舍211); 安用固(⇔동양본 “苦”, 동경대본 “姑”)辭爲也212); 無比(⇔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 “非”)凶醜213); 獵人臂(버클리대본·국도본⇔동경대본 “飛”)鷹呼狗214); 其外如農商(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桑”)之事215); 江界妓爲李訕(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에는 “倅”)守節216)

210)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위 경우들은 모본의 한자와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된 문장은 말이 성립한다. 가령 ‘我若移居(버클리대본·국도본 ⇔동양본 “去”)’의 경우를 보자. <버클리대본>은 ‘居’로 표기하여 ‘만약 내가 옮겨가 살면’이란 뜻을 만들었는데 <동양본>이 ‘居’를 ‘去’로 표기하면서 ‘만약 내가 옮겨가버리면’이란 뜻을 만들었다. 문맥 속에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나타났다. <동양본>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찌다 그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無比(⇔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 “非”)凶醜’의 경우에서 <버클리대본>은 ‘比’를 써서 ‘흥측하고 추하기가 비할 데가 없었다.’는 뜻을 만들었는데 <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 등은 ‘非’를 써서 ‘흥측하고 추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뜻을 만들었다. 후자가 좀더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는데 여기에 필사자의 고심이 엿보인다. ‘獵人臂(⇔동경대본 “飛”)鷹呼狗’에서 <버클리대본>은 ‘臂’를 써서 ‘사냥꾼이 매를 팔뚝에 얹히고 사냥개를 불렀다.’라는 뜻을 만들었는데 <동경대본>은 ‘飛’를 써서 ‘사냥꾼이 매를 날려보내고 사냥개를 불렀다.’는 뜻을 만들었다. 의미상으로 볼 때 ‘飛鷹’과 ‘呼狗’가 대응되는 후자가 좀더 매끄럽지만 전자가 오류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음절의 교체는 한 이본 안에서도 일관되지가 않다. ‘自幼時守(⇔동양본 “隨”)廳²¹⁷⁾’과 ‘嘗以巡使隨(⇔고대본 “守”)廳妓侍立矣²¹⁸⁾’에서 보듯이 같은 <버클리대본> 안에서 ‘守’를 쓰기도 하고 ‘隨’라고 쓰기도 했다. 한 사람의 필사자가 음사 표기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211) <誇丈夫西貨滿馱>(청구야담 권1)
 212) <老學究借胎生男>(청구야담 권4)
 213) <降大賢仙娥定產室>(청구야담 권10)
 214) <遊淇營風流盛事>(청구야담 권8)
 215) <治產業許仲子成富>(청구야담 권7)
 216) <江界妓爲李帥守節>(청구야담 권7)
 217) <題神主眞書勝諺文>(청구야담 권7)
 218) <平讓妓妍醜兩不忘>(청구야담 권7)

나아가 음사가 한 단어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도 찾을 수 있다. ‘僧超然跳(⇔동양본 “躍”)過無難也’에서 <버클리대본>은 ‘跳’로, <동양본>은 ‘躍’으로 표기하였는 바, 이는 ‘도약(跳躍)’이라는 단어의 독음이 필사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는데, <버클리대본> 필사자에게는 ‘도’가 압도하여 필사 단계에 관철되고 <동양본> 필사자에게는 ‘약’이 압도하여 필사 단계에 관철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平日信使與(⇔고대본 “可”)否’는 한 단계 더 확장된 경우다. 즉, <버클리대본> 필사자에게는 ‘가부(可否)’보다는 ‘여부(與否)’가, <고대본> 필사자에게는 ‘여부(與否)’보다는 ‘가부(可否)’라는 단어의 독음이 압도하고 있는 결과가 필사에 관철되었다고 본다.

3. 한자음을 부정확하게 읽었거나, 정확하게 읽었지만 잘못 기억하여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지 못한 경우

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것은 종성이 탈락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다.

將(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自”)移南村而居²¹⁹); 一日夜因(←동양본 “仍”)棄家逃²²⁰); 家仍(←동양본 “因”)蕩敗²²¹); 韓安東光近世京(←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에는 “居”)西郊²²²); 使他人莫能諦視(→동양본 “識”)²²³); 吾因(→동경대본 “仍”)此²²⁴); 嚴勅(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治”)冥王²²⁵); 獨坐一室(→동경대본 “時”)心誦口讀²²⁶

219) <策勳名良妻明鑑>(청구야담 권2)

220) <入吏籍窮儒成家業>(청구야담 권9)

221) <行胸臆尹弁背義>(청구야담 권9)

222) <感主恩奴僧占名穴>(청구야담 권10)

223) <驅鄉儒朴靈城登科>(청구야담 권4)

224) <樂溪村李宰逢鄉儒>(청구야담 권9)

225) <白頭翁指教一書生>(청구야담 권10)

226) <致精誠課曉拜佛像>(청구야담 권4)

먼저 종성이 탈락되거나 변형되는 경우이다. ‘將(→고대본 “自”)移南村而居’에서 <고대본> 필사자는 ‘將移’를 ‘장이’로 읽었는데 비모음동화²²⁷⁾에 의해 ‘ㅇ’을 탈락시켜 ‘자이’로 발음하여 ‘自’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²²⁸⁾ ‘一日夜因(←동양본 “仍”)棄家逃’에서 <버클리대본> 필사자는 <동양본>의 ‘仍棄’를 [잉기]로 정확하게 읽었다. 그러나 그는 연구개음화²²⁹⁾에 익숙해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잉기] 였는데, 자기가 [잉기]로 발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잉 교정’을 하여 ‘인기’로 기억하고 ‘因棄’로 표기했다고 할 수 있다. ‘家仍(←동양본 “因”)蕩敗’에서 <버클리대본> 필사자는 앞에서와는 반대쪽으로 오류를 범했다. <동양본>의 ‘因’을 ‘인’으로 읽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종성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다가 ‘잉’으로 재구성하여 ‘仍’으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런 점에서 <버클리대본> 필사자는 ‘잉→인’과 ‘인→잉’ 쌍방향으로 독음을 잘못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경대본> 필사자도 ‘인→잉’의 음사 오류를 범했다.²³⁰⁾ ‘吾女寄跡於成(←고대본 “宣”)川境內之山寺’에서도 종성의 교체가 일어났다.

고대본과 가람본의 필사자는 ‘嚴勅(→고대본·가람본 “治”)冥王’에서 ‘勅’을 정확하게 읽어 [엄칙명왕]이라 발음했지만 중간의 [칙]음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종성을 희미하게 하여 ‘치’로 기억함으로써 ‘治’라는 엉뚱한 글자를 표기했다. <동경대본> 필사자는 ‘獨坐一室(→동경대본 “時”)心誦口讀’에서 보듯이 ‘室’을 [실]로 읽었다 종성을 탈락시켜 ‘시’로 기억해내어 ‘時’라는 엉뚱한 한자를 필사하여 문맥을 흐트러뜨렸다. 이상은 필사자가 종성의 기억을 희미하게 했거나 종성을 음가로 실현시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류라 하겠다.

227) 어말의 ‘ㅇ’ 또는 모음과 모음 ‘ㅣ’ 사이에 있는 ‘ㅇ’이나 ‘ㄴ’이 탈락하면서 선행모음을 비모음화(鼻母音化)하는 음운현상이다. 직재[직장], 파이[땅이], 아이[아니].

228) 비음동화에 대해서는 신승용, 『국어음운론』, 역락, 2013, pp.155-161.

229) 연구개음화는 위치 동화의 일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칙은 /ㄴ/이 /ㄱ/ 앞에서 [ㅇ]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신승용, 위의 책, pp.175-176)

230) 吾因(→동경대본 “仍”)此

다음으로 중성이 첨가되는 경우이다. ‘韓安東光近世京(←국도본·고대본·동경대본에는 “居”)西郊’에서 <버클리대본> 필사자는 ‘居’를 [거]로 읽었다가 ‘ㅇ’ 중성을 덧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독음이고 또 그 독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에 ‘경’으로 기억해내어 ‘京’이라는 엉뚱한 한자를 필사했다. ‘使他人莫能諦視(→동양본 “識”)’에서 <동양본>의 필사자는 ‘視’를 [시]로 읽었다가 ‘ㄱ’ 중성을 덧붙여 ‘식’으로 기억해내어 ‘識’이란 엉뚱한 한자를 필사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음운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나머지는 모두 필사자가 한자 독음을 잘못 읽어서 저지른 오류라 할 수 있다. ‘嚴君之博²³¹⁾(←일사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博”)友鄭生’에서 <버클리대본> 필사자는 ‘博’을 [박]이 아니라 [부]로 잘못 읽어 ‘博’로 표기하여 문장의 의미가 불통하게 하였다. ‘西(→동양본 “小”)狹樓’의 경우 ‘西’가 ‘小’로 표기되었는데, 두 한자 다 필사자가 독음을 모를 정도로 어려운 한자가 아니다. 추측컨대 ‘西’의 독음인 [서]가 [소] 비슷하게 발음되어 기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이북 평안도 지역 사람들의 ‘ㄱ’ 발음이 ‘ㄱ’에 매우 가깝게 발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출신이었을 법한 필사자가 자기 발음에 착각을 일으켜 ‘소’로 기억하고 ‘小’로 필사한 것이다. ‘第隨轎出城(→고대본 “送”)而去’에서 ‘城’을 [성]으로 읽었다가 ‘송’으로 기억하여 ‘送’으로 표기한 것도 같은 현상이다.

‘子孫(→동양본 “姓”)衆多’에서는 ‘孫’이나 ‘姓’ 역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한자다. <동양본> 필사자는 ‘孫’을 [손]으로 읽었을 것은 거의 분명하다. 다만 ‘손’이란 독음의 기억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으로 변환되어 마침내 ‘姓’으로 표기했다. 이 역시 ‘ㄱ’와 ‘ㄱ’의 교체 음운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교체의 결과 ‘자손이 많았다.’는 원래 뜻이 ‘아들의 성(姓)이 많았다.’는 괴상한 뜻이 되어버렸다. ‘吾今日眞得死所(→고도

231) 博: 일사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은 “博”으로 잘못 필사.

서본 守)矣'에서 <고도서본> 필사자는 '所' → '소' → '수' → '守'의 과정을 거쳐서 '守'라 표기함으로써 의미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외 중성에서의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들은 '사' → '세'(婢已備置紗(→동양본 "細")笠帖裡²³²), '퇴' → '토'(積堆(→동양본 "土")之中²³³), '휘' → '희'(崔公方在吳將軍麾(→고대본·동양본·가람본 "戲")下²³⁴), '승' → '생'(留三日, 僧(→동양본 "生")爲公推命²³⁵) 등이다. '퇴' → '토'로의 교체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퇴(堆)로 적고 있는 <버클리대본>이 '토(土)로 적고 있는 <동양본>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승'과 '생'의 교체도 예를 들어 '초승달'과 '초생달'처럼 일반적인 음운 현상을 따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초성의 교체도 일어나는 데, '내'와 '래'(吾來(←동양본 "乃")在此), '가'와 '자'(其家(→동경대본 "子")素是貧家) 등이다. '내'와 '래'의 교체는 두 음법칙을 적용하거나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다는 판단에서 두음법칙 적용 전의 글자로 복귀하는 교정 과잉의 소산이라고 본다.

4. 한자음을 비슷하게 읽었거나 기억하고, 뜻이 비슷한 글자로 필사한 경우

여기서는 중성이 탈락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오직 한 사례만 발견된다. '類非閭閻間(⇔동양본·동경대본 "家")賤物²³⁶'에서 '간'과 '가'의 교체가 발견된다. 중성이 탈락되었거나 덧붙여졌다. '一邑吏(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人")民, 皆伏其神矣²³⁷'에서 '이'와 '인'이 교체되고 있다. '3. 한자음을 부정확하게 읽었거나, 정확하게 읽었지만 잘못 기억하여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지 못한 경우'에 비

232) <獲重寶慧婢擇夫>(청구야담 권3)

233) <班童倒撞藁草中>(청구야담 권4)

234) <張義士爲國捐生>(청구야담 권6)

235) <澤風堂遇僧談易理>(청구야담 권5)

236) <崔崑崙登第背芳盟>(청구야담 권4)

237) <清州倅權術捕盜>(청구야담 권5)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든 셈이다. 어떤 한자를 의미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한자를 금방 떠올려 필사할 수 있을 정도의 한문 실력과 집중력을 갖춘 필사자는 독음 생성과 기억에서도 그렇지 않은 필사자에 비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반면 중성 교체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는 모든 필사자가 사투리와 개인적 발음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그중에서도 ‘직’과 ‘즉’(明日直(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卽”)往其家²³⁸); 直(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卽”)向臺上²³⁹); 上馬卽(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直”)行²⁴⁰); 文秀卽(⇔동경대본 “直”)上廳²⁴¹)의 교체가 가장 빈번하다. 이 교체는 18세기 말까지 확인된 ‘一’ ‘丨’ 교체 현상의 지속 결과라 볼 수 있다. ‘취’와 ‘치’(決意就(⇔동양본 “致”)死²⁴²), ‘관’과 ‘간’(急往觀(⇔동양본·동경대본 “看”)之²⁴³)의 사례는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 외 ‘여’와 ‘유’(只與(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有”)一幼女一童婢同居矣²⁴⁴), ‘거’와 ‘계’(不知其所去(⇔동양본 “屆”)²⁴⁵), ‘의’와 ‘이’(則好矣(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爾”)²⁴⁶)의 교체 사례도 발견된다. 이들 모두에서는 필사자가 독음이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통할 수 있는 한자를 요령있게 떠올려 필사한 경우라 하겠다.

‘卽起入內(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來”)²⁴⁷’와 ‘遂與同行上(⇔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일사본 “向”)京²⁴⁸’ 등에서는

238) <呂繡衣移花接木>(청구야담 권1)

239) <窮儒詭計得科宦>(청구야담 권1)

240) <練光亭錦南應變>(청구야담 권2)

241) <矜朴童靈城主婚>(청구야담 권9)

242) <李節度窮途遇佳人>(청구야담 권3)

243) <定名穴牛臥林間>(청구야담 권4)

244) <吠官庭義狗報主>(청구야담 권5)

245) <赴南省張生漂大洋>(청구야담 권3)

246) <策勳名良妻明鑑>(청구야담 권2)

247) <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권1)

초성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전자에서는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왔다.’와 ‘즉시 일어나 들어왔다.’로 해석되기에 둘 다 문장이 성립되고 뜻의 차이도 없다. 후자에서는 ‘마침내 동행하여 서울로 올라갔다.’와 ‘마침내 동행하여 서울로 향했다.’로 해석되기에 역시 뜻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必移繫於(⇔동양본 “牛”)樹陰之中²⁴⁹⁾’은 복잡한 전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於’ ⇔ ‘어’ ⇔ ‘우’ ⇔ ‘牛’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추정의 문제점은 경기도 서울말 구사자들의 발음 성격 상 ‘어’와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우’가 아니라 ‘오’라는 점이다. 이는 앞의 3절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래서 다른 과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버클리대본>에서 <동양본>으로 나아갔다고 보고 그 사이에 다른 이본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중간 이본은 <버클리대본>의 ‘於’를 보고 그와 동의어라 할 수 있는 ‘于’로 표기했고, ‘于’를 본 <동양본> 필사자가 모양이 비슷한 ‘牛’라고 표기했는데 우연하게도 그 역시 의미가 통하게 된 것이다. 이런 추정은 한자의 소리보다 단어의 ‘뜻’과 ‘모양’ 요인을 우선 생각한 것이다.

그의 ‘親取(⇔동양본 “持”)斧鍤之屬’에서는 ‘취’와 ‘지’가 교체되었기에 초성과 중성이 함께 교체되었다. ‘厥(⇔동양본에는 “勸”)農許諾而去²⁵⁰⁾’에서는 ‘꺄’와 ‘꺄’의 관계이기에 중성이 교체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勸農’이 [꺄꺄]으로 소리나기에 ‘꺄’이 ‘꺄’로 교체되고 ‘厥’로 표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IV. 『청구야담』 이본 비교에서의 음사 오류 현상 활용

야담집의 이본 비교는 야담 작품의 형성과 전승, 변이를 연구하는 데

248) <宰錦城杖殺金漢>(청구야담 권1)

249) <定名穴牛臥林間>(청구야담 권4)

250) <鰥班弄計卜隣寡>(청구야담 권4)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지금까지 이본 비교에서 당연하게 전제된 것은 문장이나 글자에서 차이를 발견하여 이본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장이나 글자의 차이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단순히 차이가 많은 이본 사이의 거리가 그렇지 않은 이본의 그보다 멀다고만 단정내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청구야담』 이본 중 최선본이라 할 <버클리대본>과 그 다음 많은 야담을 싣고 있는 <동양본>, 그리고 6책본을 대표하는 <국도본>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일은 『청구야담』 이본 비교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본(<국도본>을 지칭)이 버클리대본에 비해 동양문고본(<동양본>을 지칭)과 상친성을 지니고 있²⁵¹⁾’다거나, ‘국립본은 동양문고본과 친연성을 지니면서도 독자적 면모가 나타²⁵²⁾’난다는 임완혁의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임완혁은 세 이본들 중에서 차이 나는 해당 부분들을 정교하게 대조하여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기에 적어도 그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만을 보면 그 견해는 타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본고에서 적출한 음사 오류의 사례들을²⁵³⁾ 보면 그런 결론과 다소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먼저 다음의 사례들은 <국도본>이 <버클리대본>보다 <동양본>과 상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기 어렵게 한다.

①我若移居(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去”²⁵⁴⁾); ②其外如農商(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桑”)之事²⁵⁵⁾; ③嚴勅(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治”)冥王²⁵⁶⁾; ④只與(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有”)一幼女一童婢同居矣²⁵⁷⁾; ⑤立墓石工(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共”)匠感孝婦²⁵⁸⁾; ⑥與吾同去(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居”)鄉中²⁵⁹⁾; ⑦湖丹旌先素輜(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驕”)後²⁶⁰⁾; ⑧不拘(버클리대·본

251) 임완혁, 『구연 전통과 서사』, 태학사, 2008, p.148.

252) 위의 책, p.150.

253) 필자가 앞으로 제출할 모양 오류나 뜻 오류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도본→동양본 “苟”)小節²⁶¹); ⑨少時磊(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 “牢”)落(→동경대본 “犖”)不羈²⁶²); ⑩殘山斷(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 “短”)²⁶³); ⑪俄者老(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 “路”)人携手指路²⁶⁴

이상 11 사례에서 <국도본>은 <버클리대본>과 동일한 반면 <동양본>과는 다르다. <국도본>과 <버클리대본>이 정확하게 필사한 반면, <동양본>이 잘못 필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도본>이 <동양본>과 같고 <버클리대본>과 다른 사례는 오직 ‘遂與同行上(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동양본·가람본·일사본 “向”)京²⁶⁵’ 한 경우만 있다. 그것도 양쪽 다 뜻이 통한다. ‘而只有一介(버클리대본↔국도본·고대본·동양본·동경대본·가람본 “箇”)女息(버클리대본·국도본↔동양본·동경대본·과수편·가람본 “媳”)²⁶⁶’에서는 이어진 하나의 문장에서 앞에서는 <국도본>이 <동양본>과 동일하고 <버클리대본>과 다른 반면, 뒤에서는 <국도본>이 <버클리대본>과 동일하고 <동양본>과 다르다.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이 같고 <국도본>과는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54) <結芳緣二八娘子>(청구야담 권5)
 255) <治產業許仲子成富>(청구야담 권7)
 256) <白頭翁指教一書生>(청구야담 권10)
 257) <吠官庭義狗報主>(청구야담 권5)
 258) <立墓石工匠感孝婦>(청구야담 권1)
 259) <李東臯爲僊擇佳郎>(청구야담 권2)
 260) <起死人臨江哀輓>(청구야담 권6)
 261) <朴南海慷慨樹功>(청구야담 권2)
 262) <還玉童宰相償債>(청구야담 권10)
 263) <乞婚需朴道令呈表>(청구야담 권5)
 264) <金丞相瓜田見異人>(청구야담 권10)
 265) <宰錦城杖殺金漢>(청구야담 권1)
 266) <李東臯爲僊擇佳郎>(청구야담 권2)

①士人出居(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去”)外舍²⁶⁷;
 ②江界妓爲李帥(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에는 “倅”)守節²⁶⁸;
 ③一邑吏(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일사본·가람본 “人”)民 皆伏其神矣²⁶⁹; ④卽起入內(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來”)²⁷⁰; ⑤再不渡(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到”)漢江²⁷¹

이는 <국도본>이 <버클리대본> 및 <동양본>과 거리가 있는 이본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도본>이 <버클리대본>과 상친성을 가진다는 앞의 사례에 비하면 빈도수가 작다.

①將(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自”)移南村而居²⁷²; ②明日直(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卽”)往其家²⁷³; ③直(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卽”)向臺上²⁷⁴; ④上馬卽(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直”)行²⁷⁵; ⑤則好矣(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爾”)²⁷⁶; ⑥與屋子齊高(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告”)²⁷⁷; ⑦僅(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近”)庇風雨²⁷⁸; ⑧權旣(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가람본 “其”)隣居²⁷⁹; ⑨姑未起(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忌”)寢²⁸⁰; ⑩尙(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當”)教我以開井之方²⁸¹; ⑪都(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고대본 “徒”)出於威脅也²⁸²

- 267) <誇丈夫西貨滿馱>(청구야담 권1)
 268) <江界妓爲李帥守節>(청구야담 권7)
 269) <清州倅權術捕盜>(청구야담 권5)
 270) <現宵夢龍滿裳幅>(청구야담 권1)
 271) <料倭寇麻衣明見>(청구야담 권1)
 272) <策勳名良妻明鑑>(청구야담 권2)
 273) <呂繡衣移花接木>(청구야담 권1)
 274) <窮儒詭計得科宦>(청구야담 권1)
 275) <練光亭錦南應變>(청구야담 권2)
 276) <策勳名良妻明鑑>(청구야담 권2)
 277)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278) <擇夫婿慧婢識人>(청구야담 권5)
 279) <得二妾權上舍福緣>(청구야담 권5)
 280) <進祭需嶺吏欺李班>(청구야담 권7)

위의 사례는 <국도본>, <버클리대본>, <동양본>이 동일한 경우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이 11 경우나 되지만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이본이 <고대본>과 <가람본>이란 점이 두드러진다. 음사 오기 차원에서 따져보면 <고대본>은 6책본 중에서 오기가 가장 많은 이본이다. 그리고 <가람본>은 그런 <고대본>과 친연성이 큰 이본이다. 그런 점에서 <국도본>, <버클리대본>, <동양본>이 특정 한자에 대해 동일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즉 세 이본이 상친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한자를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확하게만 표기하고 있는데, <고대본>이 그것을 오기하였기에 그 점에서 두드러졌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위 세 가지 사례 범주 중 첫 번째 것, 즉 <국도본>과 <버클리대본>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근거로서 가장 신뢰도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도본>은 <동양본>보다는 <버클리대본>과의 상친성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 이 점은 이본의 권별 비교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버클리대본> 권10과 관련해서이다. <버클리대본> 권10은 그 대부분이 <국도본> 권3으로 필사되었지만, <동양본>에는 그에 해당하는 작품이 하나도 없다.

이처럼 음사 오류 차원에서 이본 관계를 접근한 결과와 다른 영역에서의 이본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본 연구에서 새로운 반성을 하게 만든다.

야담집 이본 비교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권별 필사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이본의 권별 글자체가 다르거나 판형이 다른 것이다. 가령 <국도본>의 권1-3, 권4, 권5, 권6 등은 필체나 판형이 다르게 보인다. <버클리대본> 권4, 권9 등은 나머지 권들의 필체와 다르게 보인다. 이런 차이가 음사 오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281) <守貞節崔孝婦感虎>(청구야담 권

282) <語消長偷兒說富客>(청구야담 권1)

있다. 어떤 이본의 필사자가 전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사하는 듯 하다가도, 권이 바뀌며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한자의 동음동 의어를 재구성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²⁸³⁾ 음사 오류의 분석을 통하여 필사자의 한문 해독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구야담』의 이본에 대한 문헌적 분석은 먼저 권별 필사 시기와 필사자가 동일한가 다른가를 먼저 따져보고, 권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음사 오류의 사례도 권별로 따져본 뒤에 그 의미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음사 오류의 사례를 이본 간 선후 관계를 해명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퇴’ → ‘토’(積堆(→동양본 “土”)之中²⁸⁴⁾)로의 교체는 국어사에서 일방적인 것이어 ‘퇴(堆)’로 적고 있는 <버클리대본>이 ‘토(土)’로 적고 있는 <동양본>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준다 하겠다. ‘취’와 ‘치’(決意就(⇔동양본 “致”)死²⁸⁵⁾), ‘관’과 ‘간’(急往觀(⇔동양본·동경대본 “看”)之²⁸⁶⁾)의 사례도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버클리대본>과 <동양본>·<동경대본>의 선후 관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추증하게 한다.

후대본으로 짐작되는 이본일수록 음사 표기의 오류가 더 많이 난다는 원칙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표기한 이본과 음사 오류가 있는 이본 간의 선후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사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즉, ‘妹嘗(← 학산한언 “常”)面壁就燈, 此何意也’의 사례이다. 익히 알려진대로 『청구야담』은 『학산한언』 소재 작품 31화를 옮기고 있는데,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인 <拒强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도 이 사례

283) 이에 대해서는 필사 오류에서 한자 독음의 ‘소리’와 ‘뜻’, ‘모양’과 ‘뜻’, 그리고 ‘소리’·‘모양’·‘뜻’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정교하게 설명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고를 통해 입증하겠다.

284) 班童倒撞藁草中(청구야담 권4)

285) <李節度窮途遇佳人>(청구야담 권3)

286) <定名穴牛臥林間>(청구야담 권4)

에 해당한다. <吉貞女>(학산한언 318면) → <拒強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의 방향이 명백하다. <吉貞女>(학산한언 318면)에서 ‘當’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만²⁸⁷⁾ <拒強暴閨中貞烈>(청구야담 상 390면)에서는 ‘嘗’으로 오기²⁸⁸⁾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본>도 <버클리대본>과 똑같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此皆婢之族黨所謂(버클리대본·동양본·국도본·가람본←학산한언 “爲”)²⁸⁹⁾’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음사의 오류가 있는 이본은 그렇지 않는 이본보다 앞설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의 선후 관계도 음사 오류의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버클리대본>(○):<동양본>(X)의 경우는 41회, <버클리대본>(X):<동양본>(○)의 경우는 20회, <버클리대본>과 <동양본>이 똑같이 음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6회로 나타난다. 두 이본이 같이 틀린 경우가 6회 나타난다는 것은 두 이본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그중 <버클리대본>이 맞고 <동양본>이 틀린 경우가, <버클리대본>이 틀리고 <동양본>이 맞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나타난다는 점에서 <버클리대본>이 <동양본>에 선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선후 관계의 추정은 <버클리대본>이 10권 10책에 총 290화인데 비해 <동양본>이 8권 8책에 총 266화라는 사실과 이어진다. 즉, <동양본>은 <버클리대본> 자체나 그에 준하는 모본을 바탕으로 하여 취사 필사된 이본이라는 결론이다.

『청구야담』 한문본에는 한자의 비슷한 모양을 두고 일어난 필사 오류도 음사 오류 못지않게 많다. 부수(部首)의 오류는 소리와 모양이 함께 개입하여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이 두 국면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서 『청구야담』 한문본 필사 오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287) 『학산한언』, p.320.

288) 『청구야담』 상, p.393.

289) <乞父命忠婢完三節>(청구야담 권6)

V. 결론

본고는 『청구야담』 한문본의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사례를 적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1)한자의 음이 같고 글자가 다른 경우 2)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글자가 다른 경우 3)한자의 음과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경우 4)한자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1)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우선 다루었다.

먼저 『청구야담』 필사 과정의 음사(音寫) 원리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야담』 필사 과정에 개입한 음사(音寫)의 양상과 필사 오류를 넷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했지만 뜻이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2)한자음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하여 문맥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필사한 경우 3) 한자음을 부정확하게 읽었거나, 정확하게 읽었지만 잘못 기억하여 글자를 정확하게 필사하지 못한 경우 4) 한자음을 비슷하게 읽었거나 기억하고 뜻이 비슷한 글자로 필사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야담』 이본 비교에서의 음사 오류 현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먼저 음사 오류 현상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청구야담』 이본 중 최선본이라 할 <버클리대본>과 그 다음 많은 단편을 싣고 있는 <동양본>, 그리고 6책본을 대표하는 <국도본>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따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도본>은 <동양본>보다는 <버클리대본>과의 상친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음사 오류 현상을 이본 간 선후 관계를 해명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어 음운 변천에서 ‘ㄴ’와 ‘ㄷ’의 교체 현상,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을 참조하여 이본 간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후대본으로 짐작되는 이본일수록 음사 표기의 오류가 더 많이 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음사의 오류가 있는 이본은 그렇지 않는 이본보다 앞설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그런 방법론과 원칙으로써 <버클리대본>이 <동양본>보다 앞선 이본임을 밝힐 수 있었다.

『청구야담』 한문본에는 한자의 비슷한 모양을 두고 일어난 필사 오류도 음사 오류 못지않게 많다. 또 부수(部首)의 오류는 소리와 모양이 함께 개입하여 생긴 필사 오류이다. 앞으로 이 두 국면에 대한 분석을 이어서 『청구야담』 한문본 필사 오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규장각본 『청구야담』.
서울대 가람문고본 『청구야담』.
서울대 일사문고본 『청구야담』.
박희병 편, 『청구야담 3·4』. 서울대 규장각, 2000.
이우성·임형택 편, 『서벽외사 해외수일본 청구야담』 상·하, 아세아출판사, 1985.
동양문고본 『청구야담』.
동경대학본 『청구야담』.
고려대본 『청구야담』.
『계서야담』(『한국문헌실화전집』1, 태학사, 1981)
『금계필담』(김종권 교주, 『금계필담』, 명문당, 1985)
『기리총화』(임형택 소장본)
『동패락송』(『동패락송』외 5종, 아세아문화사, 1990)
『잡기고담』(박용식·소재영 편, 『한국야담사화집성』 3, 태동, 1989)
신돈복, 『학산한언』, 『한국문헌실화전집』 8, 태학사, 1981.
이원명, 『원본 동야회집』 상, 하, 보고서, 1992.
안석경, 『삼교집』, 아세아문화사, 1986.
김동욱, 정명기 편, 『청구야담』 상·하, 교문사, 1996, 1-804쪽.
이우성·임형택 편, 『이조한문단편집』 하, 일조각, 1980, 293면, 1-462쪽.
최응 편, 『주해 청구야담』 1·2·3, 국학자료원, 1996, 1-522쪽.

2. 논저

- 류탁일, 『한국문헌학연구』, 세종문화사, 1986, 1-559쪽.
백두현, 이미향, 필사본한글음식조리서에나타난오기(誤記)의 유형과 발

생 원인, 『어문학』 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 25-63쪽.

신승용, 『국어음운론』, 역락, 2013, 1-259쪽.

이강옥,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19세기 야담의 구연·기록·번역,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12.31., 333-372쪽.

이강옥, 이중언어 현상과 고전문학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6호, 한국어문학회, 2009.12.31, 57-97쪽.

임완혁,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집, 한
국한문학회, 173-204쪽.

임완혁, 『구연 전통과 서사』, 태학사, 2008, 1-452쪽.

<Abstract>

A Study on Chino-Korean Transcription errors of Chunggu Yadam-Focusing on the intervention of phonetic transcription

Lee, Kang-ok

This paper studies cases of errors in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cribing Chunggu Yadam in Chino-Korean and analyzes the reasons of their errors. Four prominent reasons can be traced: the first type of errors occurring from homonyms; the second from words with similar shapes but different letters; the third from words with similar meanings but different sounds and shapes; the last from the different location of Chino-Korean letters. This paper limits its analysis only to the first cases.

First, this paper illuminates the principles of phonetic transcription of Chunggu Yadam and then proceeds to analyze four types of errors resulting from the phonetic transcription process. 1) The first cases occurred when the transcriber used letters with different meanings even though he read and remembered the original texts correctly. 2) The second cases happened when the transcriber replaced the original words with the letters with same meanings that he thought were more suitable to the context. 3) The third cases resulted from incorrect transcription due to misreadings or false memories of the original words. The last cases were results of transcribing similar letters based on mistaken readings and remembrances of similar

letter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utilizing these errors in phonetic transcription for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editions of Chunggu Yadam. A Principle can be deduced that an edition presumed to be a later version has more phonetic transcription errors. An edition with phonetic transcription errors has little chance of being an earlier version than that without errors.

Chino-Korean version of Chunggu Yadam contains fair numbers of transcription errors due to similar shapes of letters. Further analysis of these errors is necessary for a comprehensive study of transcription errors of Chino-Korean Chunggu Yadam.

Key Words: transcription errors of Chino-Korean Chunggu Yadam, Chino-Korean phonetic transcription, Chunggu Yadam, shape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